

나흘에 한번 빵 섭취

조사결과 1인당 연간 빵 90개 소비 전빵·단팥빵 등 '기타빵류' 비중이 가장 커 주요 수출국 미국·일본·대만... 전체 93.2%

우리나라 국민이 1인당 연간 90개의 빵류를 섭취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흘에 한번 꼴로 빵을 섭취하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7일 발간한 '2018 가공식품 소비현황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빵류 소비량은 약 90개다. 2012년의 78개에 비해 12개 늘었다. 국민 한 사람이 나흘에 한 번은 빵 1개를 먹는다는 얘기다.

하루 섭취하는 식품 순위 중 빵류가 2012년 21위(18.2%)에서 2016년 15위(20.9%)로 6단계 상승했다. 남성(22.6%)이 여성(19.2%)보다 3.4g 더 많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빵류 생산규모는 2016년 기준 2조3308억원으로, 2012년의 1조9066억원에 비해 11.8% 늘었다.

이 규모는 제과점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빵은 제외한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양산빵과 냉동생지 등을 구워 파는 베이커리 빵 실적만 포함된 것이다.

빵류 시장에서 전빵·단팥빵 등을 포함하는 '기타빵류(48.1%)'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12년과 비교하면 기타빵류의 비중은 빵류 제품의 다양화로 7.4%포인트 증가했다.

기타빵류 다음으로는 '케이크'(34.5%), '식빵'(8.7%), '도넛'(3.8%), '가스텔라'(3.4%), '파이'(1.6%) 순이었다.

2016년 기준 제과점업 매출은 5조9388억원으로 2012년의 3조9638억원보다 49.6%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비중이 60.7%로 여전히 높으나, 최근 식빵·가스텔라·단팥빵 등 특정 품목만 판매하는 전문점

과 지역 유명 베이커리 전문점의 확대로 '프랜차이즈 외 브랜드' 매출(2013년 1조2124억원→2016년 2조3353억원)과 비중(28.6%→39.3%)이 커지는 추세다.

소매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양산빵 매출(2012년 3107억원→2016년 4250억원)은 36.8% 늘었다.

2016년 기준 소매 채널별로는 편의점(30.7%), 독립슈퍼(20.8%), 할인점(19.1%), 체인슈퍼(15.5%), 일반식품점(13.8%), 백화점(0.2%) 순으로 많이 팔리고 있었다.

빵류의 수출 규모는 2013년 3101만 달러에서 지난해 2710만 달러로 12.6% 감소했다. 반면 수입 규모는 1911만 달러에서 5580만 달러로 191.9% 증가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42.8%), 일본(13.5%), 대만(12.1%) 등의 순이고, 이들 3개국이 전체의 68.3%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 주 품목은 파이와 케이크로 전체 수출의 93.2%를 차지했다.

/김영태 기자

5월 수입차 2만3470대 신규등록... 전년비 21.1% ↑

메르세데스-벤츠 5839대로 1위 수성 베스트모델 BMW 520d·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5월 수입차 신규 등록대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5월 수입차 신규등록대수는 2만3470대로 집계됐다. 4월(2만1592대)에 비해서는 9.5% 줄었지만 지난해 5월(1만9380대)에 비해 21.1% 증가할 수 있다.

올 들어 5월까지의 누적대수는 11만6798대로, 전년 동기 누적(9만14397대)보다 23.7% 증가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5월 한 달간 5839대를 판매하며 1위를 유지했고, BMW가 5222대로 뒤를 바짝 따랐다. 폭스바겐 역시 2194대를 나타냈다.

뒤를 이어 ▲도요타 1455대 ▲아우디 1210대 ▲랜드로버 1066대 ▲렉서스 1022대 ▲포드 923대 ▲볼보 780대 ▲미니 662대 ▲혼다 618대 ▲크라이슬러 602대 ▲닛산 418대 ▲푸조 388대 ▲포르쉐 297대 ▲재규어 213대 ▲인피니티 172대 ▲캐딜락 147대 ▲마세라티 130대 ▲시트로엥 79대 ▲벤츨리 21대 순이었다.

배기량별 등록대수는 2000cc 미만인 1만5143대(64.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2000cc~3000cc 미만 6865대(29.3%) ▲3000cc~4000cc 미만 1257대

(5.4%) ▲4000cc 이상 180대(0.8%) ▲기타(전기차) 25대(0.1%)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유럽차가 1만8113대로 77.2%를 차지했고, 일본이 3685대(15.7%), 미국이 1672대(7.1%) 순이었다. 연료별로는 디젤 1만1766대(50.1%), 가솔린 9617대(41.0%), 하이브리드 2062대(8.8%), 전기 25대(0.1%) 순이었다.

구매유형별로는 2만3470대 중 개인구매가 1만5566대로 66.3%, 법인구매

가 7904대로 33.7%를 각각 차지했다. 개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경기 4702대(30.2%), 서울 3651대(23.5%), 부산 1007(6.5%) 순이었고 법인구매의 지역별 등록은 인천 2484대(31.4%), 부산 1964대(24.8%), 대구 1277대(16.2%) 순이었다.

5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BMW 520d(1239대), 폭스바겐 Tiguan 2.0 TDI(1200대), 아우디 A6 35 TDI(831대) 순이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윤대성 부회장은 "5월 수입차 시장은 일부 브랜드의 물량부족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영태 기자



메르세데스-벤츠가 5월 한달간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JB금융그룹, 청년들 신규 일자리 창출

신입행원 110명채용... 70% 이상 지역 할당

JB금융지주는 2018년도 하반기 신입행원을 110명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JB금융그룹은 청년들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디지털뱅크 강화를 위해 자회사인 전북은행 50명, 광주은행 60명 등 총 110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북은행 38명, 광주은행 53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120% 이상 채용인원이 증가했다.

채용절차는 은행연합회에서 발표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

을 최대한 준수해 신입행원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채용시기도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이 확정되면 결정한다.

특히 지방은행의 특성상 지역 인재 등용을 위해 전체 채용인원의 70% 이상을 광주, 전남, 전북에 할당한다.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에 따른 지역인재들의 차별과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지역 할당제를 유지한다.

/김영태 기자



'빈야드' 대용량 와인 7일 서울 홀플러스 레스토랑에서 모델들이 '빈야드' 대용량 와인을 선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창업 콘테스트 열어

내달 18일까지 참가 접수... 예선·본선 거쳐 10월 결선

농식품 분야 창업 아이디어를 겨루는 '2018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나는 농부다)'가 본격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콘테스트는 농식품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자를 발굴·육성해 창업 불확실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예비 창업자나 창업 5년 이내 업체라면 참가할 수 있고, 응모 분야는 식품·농산물, 농식품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서비스, 농기자재, 6차산업 등으로 제한이 없다.

콘테스트는 지역 예선을 거쳐 4개 팀을 선발한 후 전국 본선을 치러 상위 10개팀을 뽑고선 10월중 최종 결선을 하는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된다. 6차산업 청년창업 사업모델 공모전에서 수상한 5개팀은 정외의 본선에 오르게 된다.

이렇게 본선에 진출한 총 50개팀은 분야별 전문가 멘토단으로부터 일대일(1:1) 지원을 받게 된다.

콘테스트 전 과정은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돼 9~11월 중 공중파를 통해 6차례에 걸쳐 방영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본선에 진출한 모든 팀에게 대형마트 특별 기획전과 유통업체 품평회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을 포함해 결선에 진출한 총 10개팀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기술사업화 연구·개발(R&D) 자금과 1000만원 상당의 창업보육을 지원한다. 농식품 벤처제품관(분류마켓) 우선 입점 기회도 준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식품 창업 콘테스트가 지난 3년간 농식품 분야 스타트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도 유망 아이디어를 보유한 농식품 분야 창업 스타가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과기정통부, 통신비 원가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르면 이달 말 LTE 통신비 원가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7일 "LTE 통신비 원가 공개를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이달 말 공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에 관련된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G, 3G 통신비 원가 공개에 이어 LTE 통신비 원가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참여연대는 이날 과기정통부로부터 전달받은 이통 3사의 2G, 3G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특계 명세서와 요금제 인가 자료 등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엔 공개한 자료에 대한 회계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에 LTE 원가 관련 자료를 인가 및 신고자료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참여연대 측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2G, 3G 관련 정보 공개청구 과정에서 7년이라는 시간이 소모되면서 직접적으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라며 "오늘 진행될 LTE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세븐일레븐 창립 30주년 디즈니 픽사 식기 판매

세븐일레븐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토이스토리, Mr. 인크레더블 등 디즈니 픽사 캐릭터를 활용한 식기류 9종(보울 8종·접시 1종)을 이달 11일부터 단독 한정 판매한다고 7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이 선보이는 디즈니 픽사 캐릭터 식기류는 픽사 공식 라이선스 상품이다. Mr. 인크레더블, 니모, 슬픔이, 우디 등의 캐릭터들을 담고 있다.

세븐일레븐에서 담배, 주류, 서비스 상품을 제외한 구매 상품 총액이 3000원 이상이면 스타커 모음판과 함께 캐릭터 스티커 1개를 받을 수 있다. 이 스티커를 4개 모으면 보울이나 접시 중 원하는 상품을 55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11개를 모으면 무료로 증정한다.

이번 캐릭터 식기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도록 불투명 박스에 담아 랜덤으로 판매한다. 9개 전 상품이 하나로 구성된 종합 세트는 전국 3000여 점에 별도 진열해 선보인다.

제품은 전국 4500여 점포에서 총 20만개 한정 판매할 계획이다. 무료 증정은 전국 주요 거점에 위치한 400여 점포에서 진행된다. 행사 대상 점포는 세븐일레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